
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(오영환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5008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2. 3. 30.

발 의 자 : 오영환 · 김민철 · 김병기
김주영 · 문정복 · 민병덕
박성준 · 박 정 · 윤준병
임오경 · 홍기원 의원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서 선거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대통령 · 국회의원 · 지방선거에서 선거사무원들이 많은 활동을 하면서 업무상 재해에 노출되고 있음.

선거사무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2007년 10. 26. 대법원판결(2005도 9218)에 따라 이들도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나 「공직선거법」에 명시적 규정이 없어 현장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.

이에 선거사무원을 두는 경우 「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도록 이 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선거사무원에 대한 업무상 재해 보상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(안 제62조제3항).
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2조제3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제2항에 따라 선거사무원을 두는 경우에는 「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第62條(選舉事務關係者의 選任)</p> <p>①・② (생략)</p> <p><u><신설></u></p> <p>③ ~ ⑧ (생략)</p>	<p>第62條(選舉事務關係者의 選任)</p> <p>①・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제2항에 따라 선거사무원을 두는 경우에는 「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.</p> <p>④ ~ ⑨ (현행 제3항부터 제8항까지와 같음)</p>